

# 성탄수와 구유

김 영 국

석가탄신일의 대표적인 장식이 연등이라면,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‘성탄수’ (聖誕樹)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‘구유’는 성탄을 대표하는 장식이라 하겠다.

## 구유 안의 예수님

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3년 그레치오 성당에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 뜬 마구간을 만들었는데, 이는 신자들이 성탄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깨닫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. 성당에 큰 규모로 설치되는 성탄수와 구유도 아름답지만,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장식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.


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구유에는 어떤 형상들이 등장할까? 마태오복음 2장과 루카복음 2장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다. 먼저,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포대기에 싸여 구유(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)에 누워 있고(루카 2, 7) 마리아와 요셉,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그 알림을 듣고 달려온 목동들이 있다.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세 명의 동방박사들도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. 또 ‘소’와 ‘나귀’도 있다. 그런데, 개나 고양이 같은 귀여운 동물이 아니고 왜 하필 소와 나귀일까?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 1장 3절의 “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.”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것이다.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

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.

## 빛과 생명의 성탄수

독일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(Lucas Cranach, 1472~1553)가 1509년 제작한 동판화에 별과 촛불로 장식된 전나무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탄수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. 성탄수, 곧 크리스마스 트리는 빛과 생명을 상징한다.

고대인들은 나무에 신성이 깃들어있다고 여겼고, 그 안에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. 예수님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분이시기에 성탄수에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았다. 요즘에는 사과 대신 동그란 방울 장식을 주로 단다.

성탄수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빛이다. 예수님은 세상의 빛(요한 8, 12)이시며, 전구들로 장식된 성탄수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.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실제로 촛불을 달아 장식했다고 한다. 우리는 화려하게 빛나는 성탄수를 보며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, 예수님처럼 “세상의 빛”(마태 5, 14)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. 

## 김영국\_요셉

본지 발행인. 서울대학교 청소년국장.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의신학을 전공하고 1994년부터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. 역서로 『미사, 제대로 드리기』(2003, 가톨릭대학교출판부), 『이름』(2006, 성서와 함께), 『매일의 축복』(2007, 성서와 함께) 등이 있다.